

정지용과 『自由詩人』

구마키 쓰토무(熊木 勉: 후쿠오카대학)

1. 들어가며

정지용이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가 주재한 『近代風景』에 시 20 여 편과 산문 2 편을 발표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¹ 그는 『街』, 『同志社文学』, 『空腹祭』에도 시를 발표한 바 있다.² 한편 그가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와 『自由詩人』에 시를 발표한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³ 정지용은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에 시 17 편, 『自由詩人』에는 시 19 편과 산문 3 편, 번역시 1 편을 발표했다. (미건 작품 포함⁴).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에 게재된 시 중, 별도로 일본어로 중복 발표한 것, 그리고 조선어로 발표한 적이 있는 작품을 제외한 시 작품, 즉 타지(他誌)에 게재되지 않고 동지에서만 발표가 확인되는 시는 4 편, 『自由詩人』에서는 동 7 편, 산문이 3 편 확인된다⁵. 정지용의 작품군 중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작품까지 포함하여 일본어 시가 일정 수 존재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일본어 시나 조선어 시 어느 쪽이든 중복 발표되지 않은 작품이 위와 같이 시 11 편, 산문 3 편이 있는 점, 중복 작품 역시도 개작이나 조선어 시와의 비교와 관련하여 확인을 요하는 데가 있는 점 등등, 정지용의 일본어 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종래의 정지용의 이해와 관련하여 간과되어 온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¹ 정지용의 일본어 작품은 鴻農映二 (1988) 및 김학동 편 『鄭芝溶全集 1. 2』 (1988 : 2 版)에서 소개되었으며 박경수 (2000 [李修京訳 : 2005]), 졸고 (1992・2001), 齊藤真理子 (2000), 사나다 히로코 (2002 [박사 논문을 吉川風 (2007) 명의로 간행한 단행본도 대략 내용이 동일하다]) 등에서 검토가 진행된 바가 있다.

² 『同志社文学』 게재 작품은 김학동 편(1988)에 수록되었고, 『街』 『空腹祭』 수록 작품은 호테이 토시히로(1996)가 소개했다.

³ 『自由詩人』과 정지용의 관계에 대한 이른 언급은

天野隆一 (1976[外村彰編 : 2013 재록] : 35 쪽), 여기에 정지용의 이름이 보인다.

佐々木靖章 (2005 : 105 쪽) 이 동지(同誌)의 성과의 하나가 「도시사의 환경과

고다마(児玉:児玉実用[발표자 주]) 를 위시한 우정이 조선 유학생 정지용을 시인으로 키운 것」이라 밝히고 있고, 外村彰 (2013 : 785 쪽) 도 정지용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⁴ 발표자가 확인한 것은 『自由詩人』 총 5 호 중, 제 1 호와 제 4 호뿐이다. 佐々木靖章 씨가

「『自由詩人』 『京都詩人』 목차와 해제」 (2005) 에서 목차 전부를 정리하신 바 있는데, 여기에서 정지용의 시와 산문의 제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

⁵ 이 숫자에는 미건 작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건 시 중 다른 작품과 제목이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시 1 편, 산문 1 편이 있다. 또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과 『自由詩人』에 게재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시가 1 편 (「窓に曇る息」) 있다.

「同人」 활동에 대한 인식이다. 정지용은 『街』 동인을 거친 후, 그 동인들 중 시를 주로 쓰는 멤버들이 새로 만든 『自由詩人』 지의 동인이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어 시의 검토는 일단 후일의 과제로 미루고 간단히 문제만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기로 한다. 그리고 『自由詩人』 과 정지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싶다.⁶

2. 정지용의 일본어 시

2-1 작품 일람

아래에서는 일본어 시와 일본어 시에 대응되는 한국어 시를 제시한다. 「×」 표시는 해당 한국어 시가 현재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다. ⁷ 졸고 (2001) 의 작품 일람 속에 넣을 수 없었던 작품은 ○ 표시를 붙였다. 개작을 포함하여 일본어 작품으로 여러 차례 발표한 것은 (重) 표시를, 미견 작품에는 (未) 표시를 붙였다. 미견이긴 하지만 제목만으로 볼 때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는 일단 (重) 표시를 붙였는데, 금후 확인이 필요하다. 정지용은 1923 년 5 월 3 일 도시사대학 예과에 입학, 1926 년 4 월 1 일 예과 수료 후 영문과에 입학, 1929 년 6 월 30 일에 졸업했다.

1925 年

新羅の石榴, 『街』, 1925.3	柘榴, 『朝鮮之光』, 1927.3
まひる, 『街』, 1925.7 (重)	×
草の上, 『街』, 1925.7	×
○カフツエー・フランス,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5.11 (重) 카페ー・프랑스, 『学潮』 1926.6	
○車窓より,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5.11 汽車, 『東方評論』 1932.7	
○いしころ,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5.11 조약돌, 『東方評論』 1932.7	
○仁川港の或る追憶,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5.11 (重) 슬픈 印象畫, 『学潮』 1926.6	
○シグナルの燈り, 『自由詩人』 1925.12	×
○はちゆう類動物 (一九二五・六月・朝鮮線汽車中にて), 『自由詩人』 1925.12 爬虫類動物, 『学潮』,	

1926.6

○なつばむし, 『自由詩人』 1925.12	×
○扉 <small>ドアー</small> の前, 『自由詩人』 1925.12	×

⁶ 2013 년 10 월 5 일 제 64 회 조선학회대회 간담회 중, 정지용의 일본어 시를 연구 중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다. 본 발표는 국회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自由詩人』 수록 작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도시사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수록 작품도 확인한 참인데, 본 발표를 준비하던 중에 이 분이 ‘정지용의 일본어 시 중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있다, 학생들의 잡지에 정지용이 미량의 작품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던 것 같은 기억이 떠올랐다. 구체적인 작품명은 들은 것 같지 않다. 어쨌든, 만약을 위해, 본격적인 작품 검토는 이 분의 연구를 기다리기로 하고, 본 발표에서는 발표자가 알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작품 일람과 본 발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극히 일부분의 작품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데 그치고 싶다. 그 분의 성함을 잊어 버린 탓에 작업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다. 혹은 발표자가 조사하지 못한 논문이나 구두 발표 등 속에 이미 이 분의 연구 성과가 나와 있을 가능성도 크다.

⁷ 일본어시와 한국어 시를 대조하면 표현상의 차이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본어 작품 중에도 중복 발표된 작품인 경우 개작된 것이 많다.

- 雨に濡れて, 『自由詩人』 1925.12 ×
- 恐ろしき落日, 『自由詩人』 1925.12 ×
- 暗い戸口の前, 『自由詩人』 1925.12 ×
- 詩・犬・同人(散文), 『自由詩人』 1925.12 ×

1926年

- 遠いレール, 『自由詩人』 1926.2 (重) (未) [×?]
- 帰り路, 『自由詩人』 1926.2 (重) (未) [×?]
- 眼, 『自由詩人』 1926.2 (未) [?]
- まつかな機関車, 『自由詩人』 1926.2 (重) (未) [셋밤안기관차, 『朝鮮之光』, 1927.2?]
- 橋の上, 『自由詩人』 1926.2 (重) (未) [×?]
- 幌馬車, 『自由詩人』 1926.2 (重) (未) [幌馬車, 『朝鮮之光』, 1927.2?]
- 山^{もりのむすめさとおとこ}娘野男,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6.2 산엿 색씨 들넉 사내, 『文藝時代』 1926.11
- 公孫樹,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6.2×
- 夜半,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6.2 (重) ×
- 雪,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6.2 (重) ×
- 耳,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6.2 (重) ×
- チャップリンのまね,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6.2 ×
- ステッキ,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6.2 ×
- 螺旋形の街路, 『自由詩人』 1926.3 (未) [×?]
- 笛, 『自由詩人』 1926.3 (重) (未) [피리, 『詩文學』, 1930.5?]
- 酒場の夕日, 『自由詩人』 1926.3 (重) (未) [저녁해入살, 『詩文學』, 1930.5?]
- 窓に曇る息, 『自由詩人』 1926.4 (重) ×
- 散弾のやうな卓上演説テーブルスピーチ—亡国・退廃・激情のスケッチー, 『自由詩人』 1926.4 ×
- <せんちめんたるなひとりしやべり(散文以下三篇)>
- 停車場, 『自由詩人』 1926.4 ×
- 退屈さと黒眼鏡, 『自由詩人』 1926.4 ×
- 日本の布団は重い, 『自由詩人』 1926.4×
- 朴濟瓚「雨の夕暮れ(朝鮮の詩)」[鄭芝溶翻譯], 『自由詩人』 1926.4 ×
- 初春の朝, 『自由詩人』 1926.5 (重) (未) 이른 봄 아침, 『新民』 1927.2
- 原稿紙上の夜行列車(京釜線の汽車にて)(散文), 『自由詩人』 1926.5 (未) ×
- 雨蛙,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6.6×
- 海辺,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6.6 (重) 바다, 『朝鮮之光』 1927.2⁸
- 窓に曇る息,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6.11 (重) ×
- 橋の上,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6.11 (重) ×

⁸ 「海辺」은 세 부분으로 시가 나뉘져 있는데,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近代風景』에서는 별도의 작품으로 되어 있다. 중간 부분은 「海辺」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眞紅な機関車,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6.11 (重) 셋밭안機關車, 『朝鮮之光』 1927.2
 ○幌馬車,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1926.11 (重) 幌馬車, 『朝鮮之光』 1927.2
 かつふえ・ふらんす, 『近代風景』 1926.12 (重) 카페－프랑스, 『学潮』 1926.6

1927 年

海, 『近代風景』, 1927.1 (重) 바다, 『朝鮮之光』, 1927.2
 海, 『近代風景』, 1927.2 (重) ×
 海, 『近代風景』, 1927.2 (重) 바다, 『朝鮮之光』, 1927.2
 みなし子の夢, 『近代風景』, 1927.2 ×
 悲しき印象畫, 『近代風景』, 1927.3 (重) 슬픈印象畫, 『学潮』, 1926.6
 金ぼたんの哀唱, 『近代風景』, 1927.3 船醉, 『学潮』, 1927.6
 湖面, 『近代風景』, 1927.3 湖面, 『朝鮮之光』, 1927.2
 雪, 『近代風景』, 1927.3 (重) ×
 手紙一つ, 『近代風景』 1927.3 (散文) ×
 幌馬車, 『近代風景』 1927.4 (重) 幌馬車, 『朝鮮之光』, 1927.2
 初春の朝, 『近代風景』 1927.4 (重) 이른 봄 아침, 『新民』, 1927.2
 春三月の作文, 『近代風景』 1927.4 (散文) ×
 甲板の上, 『近代風景』 1927.6 (重) 甲板우, 『文藝時代』, 1927.1
 まひる, 『近代風景』 1927.7 (重) ×
 遠いレール, 『近代風景』, 1927.7 (重) ×
 夜半, 『近代風景』 1927.7 (重) ×
 耳, 『近代風景』 1927.7 (重) ×
 帰り路, 『近代風景』 1927.7 (重) ×
 郷愁の青馬車, 『近代風景』 1927.10 ×
 笛, 『近代風景』 1927.10 (重) 피리, 『詩文學』, 1930.5
 酒場の夕日, 『近代風景』 1927.10 (重) 저녁해入살, 『詩文學』, 1930.5
 眞紅な機関車, 『近代風景』 1927.12 (重) 셋밭안機關車, 『朝鮮之光』, 1927.2
 橋の上, 『近代風景』 1927.12 (重) ×

1928 年

旅の朝, 『近代風景』, 1928 2 ×
 馬 1, 『同志社文学』 1928.10 말, 『朝鮮之光』, 1927.9
 馬 2, 『同志社文学』 1928.10 말 2, (정지용 시집 수록)

1929 年

かつふえふらんす, 『空腹祭』, 1929.9 (重) 카페－프랑스, 『学潮』, 1926.6

2-2 개작・번역과 일본어 시

[개작·번역에 대해서]

· 「かつふえ・ふらんす」(『近代風景』1926.12)는, 「카페ー・프랑스」(『学潮』1926.6)와는 달리 후반부만 존재하는 시인데, 「カフツエー・フランス」(『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1925.11)는 『学潮』처럼 전후반 모두 존재한다. 후일의 「鄭芝溶詩集」(1935)에도 전후반부가 모두 들어 있다. 『近代風景』, 그리고 그것을 전제한 『空腹祭』에서만 작품의 길이가 짧아졌다.

·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에 발표한 이후, 개작 과정에서 후반부만을 『近代風景』에 게재한 것에 「雪」이 있다. 「海辺」은 개작 후 작품이 2편으로 나뉘었고, 중간 부분은 삭제되었다.

→ 개작을 통해 느껴지는 것은, 『近代風景』에 작품을 보내면서, 작품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초점을 좁히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

· 제목 면에서도 보면, 「仁川港の或る追憶」이 『近代風景』에서는 「悲しき印象畫」가 되었다. 이는 역으로 시의 제목을 바꿈으로써 시의 배경을 애매하게 하려 한 의도일까. 또 「슬픈 印象畫」(『学潮』1926.6)에서는 다다적인 색채가 더욱 짙게 드러나고 있다.

· 「はちゆう類動物(一九二五・六月・朝鮮線汽車内にて)」(『自由詩人』1925.12)은 「爬虫類動物」(『学潮』1926.6)(한국어)로 발표되었다. 모두 다다이즘적 영향이 농후해 보인다. 끝에 「朝鮮語 原作 自譯」이라 되어 있다.

→ 초기시 중 일부 한국어 시에서는 일본어 시보다도 실험적인 요소가 짙게 발견된다. 한국 시에 모더니즘을 새로 도입하려 한 의식적인 시도일까.

[일본어 작품만 존재하는 경우]

· 『近代風景』『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街』『自由詩人』에 총 24편, 산문 4편(未見은 미포함. 개작 여부를 불문하고 중복된 것은 1편으로 계산. 「海辺」은 『近代風景』에서 2편으로 나뉘거나 1편으로 졌다. 「せんちめんたるなひとりしやべり」는 산문 1편으로 졌다).

시… 「まひる」「草の上」「シグナルの燈り」「なつばむし」「^{ドア}扉の前」「雨に濡れて」「恐ろしき落日」「暗い戸口の前」「公孫樹」「夜半」「雪」「耳」「チャップリンのまね」「ステッキ」「窓に曇る息」「散弾のやうな卓上演説-^{テーブルスピーチ}亡国・退廃・激情のスケッチ-」「雨蛙」「海辺」「橋の上」「みなし子の夢」「遠いレール」「帰り路」「郷愁の青馬車」「旅の朝」

산문… 「詩・犬・同人」「せんちめんたるなひとりしやべり(停車場、退屈さと黒眼鏡、日本の布団は重い)」「手紙一つ」「春三月の作文」

3. 정지용의 일본어 시 재검토

3-1 교토의 시인들과 정지용

[교토의 시단]

• 교토의 시문예지는 난에지로(南江二郎)가 편집한 『新詩潮』 (1922.11 ~ 전 8 집) 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전후한 시기에 학생들의 동인지도 탄생했는데, 그 중에 도시샤대학 예과생 동인을 중심으로 한 등사판 『街』 (1924.4? ~ 전 5 호? ⁹⁾) 가 있었다.¹⁰ 1924 년 11 월에는 『街』 가 활판쇄(刷)가 되면서 도시샤의 본격 문예지가 되었다. 1925 년 2 월호 편집 후기에는 「도시샤 그리고 멀리는 교토까지도 문예잡지 하나 없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본지는 서둘러 제 3 호를 내게 되었」 노라고 되어 있다. 정지용이 「新羅の柘榴」를 발표한 것은 제 4 호.¹¹ 한편 1925 년 1 월, 아마노 류이치(天野隆一)가 『青樹』를 창간한다. 교토시립회화전문학교(京都市立絵画専門学校) 재학생들이 낸 시잡지로서 동지는 교토의 모더니즘 운동을 견인, 제 35 호 (1931. 12) 까지 계속 간행하였다.¹² 같은 1925 년 1 월에 『青樹』와 함께 교토시단을 대표하는 프로레타리아 문학계의 『轟轟』가 발간된다. 그리고 1925 년 12 월에 『街』 동인들 중 시를 주로 쓰던 이들이 모여 간행한 것이 『自由詩人』이다. 이 동인지의 중심 인물은 고다마 사네치카(児玉実用)였다. 정지용은 이 동인지의 창간호부터 동인 및 편집동인으로 참가했다.

난에(南江), 아마노(天野), 고다마(児玉)는 1928 년 시마자키 도순(島崎藤村)과 다카무라 고타로(高村光太郎),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 등이 시인협회를 설립할 때 회원으로 추천된 바도 있다. 어느 정도 중앙 시단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존재였던 것 같다.¹³

『自由詩人』을 5 호까지 낸 고다마(児玉)는 1926 년 8 월, 『自由詩人』동인과 『路上』 동인을 합병하여 교토시인회(て京都詩人会)를 조직, 『京都詩人』을 창간했는데,¹⁴ 정지용은 여기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그후 고다마는 『同志社文学』 창간 (1927. 12) 때부터 잡지부 위원으로 있었다.

⁹ 발표자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등사판 제 2 호 (1924.5), 제 3 호 (1924.6), 제 4 호 (1924.7) 다. 신기한 것은 2 호 판권난에 「創刊號」라 기재되어 있었던 점이다. 「2 호부터는 넓게 시장에 내다팔 것이므로」 (66 쪽) 이라 써여 있으므로, 시판이라는 의미에서 제 2 호가 동인들에게는 창간이라는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활자판 창간호에 「六號雜記」라는 편집후기가 있는데, 아마도 그 이전에 등사판으로 5 호까지 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¹⁰ 児玉実用著作集刊行会編 (1997A : 300 頁 [佐々木靖章「あとがき」])

¹¹ 활판쇄 『街』가 몇호까지 나왔는지는 모르나, 8 호가 와세다대학 도서관에 있다. (호테이 토시히로(1996)). 이 호에 정지용도 작품을 발표했다.

¹² 外村彰 (2003 : 783 頁)

¹³ 外村彰 (2003 : 786 頁)

¹⁴ 佐々木靖章 (2005 : 106 頁)

[고다마 사네치카(児玉実用)^{さねちか}]

- 1905 년 오사카 출생 (본적은 鹿児島) . 1923 년 오사카부립 사카이(堺)중학교 졸. 1924 년 도시샤대학 예과 입학. 1924 년 6 월 『街』 제 3 호부터 참가. 1925 년 12 월 『自由詩人』 창간. 1930 년 도시샤대학 문학부 영문과 졸업. 1993 년 사망.¹⁵
- 정지용은 1903 년 (1902 년?) 생. 1923 년 휘문고보 졸업, 5 월 도시샤대학 예과 입학. 1926 년 도시샤대학 문학부 영문과 입학, 1929 년 6 월 졸업
- 『自由詩人』 발행소는 교토시 가미쿄구(上京区) 식물원 종점(植物園終点下ル)

호쿠세이관(北星館). 이곳은 고다마(児玉)의 하숙처¹⁶.

한여름 별 하늘이 잘 익은 수박을 쪼개놓은 듯하다 하니 고다마(児玉)는 선녀가 벗어놓은 옷 같다 한다. 미이의 빨간 불이 작은 난로 같다 하니 고다마는 미이의 요람 위에 무지개가 걸려 있다고 한다. 호쿠세이관(北星館)의 2 층에서 이런 식의 사치스러운 잡담을 가끔 나누는 것이다. 그가 도기(陶器)의 시를 썼을 때 나는 적벽돌 시를 썼다. 그가 눈물로 돌격해 오면 나는 월경(月經)으로 맞설 각오다.

「시란 엷은 보랏빛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이라고 그가 멋대로 정의 내리면

「시란 개를 애무하는 것」이라고 나 또한 멋대로 받았다.

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란 필요치 않다. 우울한 산보자 정도로 충분한 것이다.

정지용 「詩・犬・同人」에서 부분 인용

いんきな赤煉瓦づくりの下に佇んで/ 泥と薔薇と破れ靴の詩をたくらんでゐる。

// 犬ころの濕しめつほい情熱で濡れて吠えて/ そこいらぢうを ころげまわつてきた後

// 帽子もぼろぼろのまんとも/ じつさい可愛いひとりものゝ心臓も

// びつしより濡れてぶるぶるふるへて/ 温室と戀と蠟燭あかりの燈をしきりに呪つてゐる。

정지용 「雨に濡れて」 전문

ほの暗らくこ褐すえものき/ 陶器の一つ/ さびさびと静もりてあり。/ 現世うつせみを儚おきなごころなむ/ 翁心の寂しさに/ ひそびそと語り疲れて黙しあり/ 黙し 黙して/ 色もなくただ映りてあり/ 世のありとある/ すべてひ秘めたる陶器すえものの/ 重く 暗らく 深らかに/ 晝ひの央さなか 眠るごと/ 静もりてあり/ 黙してあり。

児玉実用 「老寂心度」 전문

[朴濟瓚(瓚)의詩]

- 朴濟瓚은 정지용과 같이 휘문고보에서 도시샤대학에 온 학생으로 『搖籃』지와 관계가

¹⁵ 児玉実用著作集刊行会編 (1997B : 375 頁[略年譜])

¹⁶ 佐々木靖章 (2005 : 105 頁)

있어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¹⁷.

· 鄭芝溶은 朴濟瓚의 시를 번역했다. 朴濟瓚이 몇 편이나마 정지용과 함께 『同志社大学予科学生会誌』 『自由詩人』에 작품을 발표한 것은 정지용의 소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또 정지용 자신도 朴濟瓚의 시에 공명했던 것이 아닐까.

· 朴濟瓚의 시에서는 「亡国」민의 울분이 느껴진다.

3-2 亡命・退廢・激情

· 『自由詩人』에 「散弾テーブルスピーチのやうな卓上演説-亡国・退廢・激情のスケッチ-」라는 작품이 있다. 이 망국・퇴폐・격정적인 언어는 교토 시절 정지용이 안고 있던 갈등상을 어느 정도 적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라를 잃은 자의 자의식, 비애, 고독감이 청신한 이미지・언어와 결합한 지점에 정지용의 시가 서 있다. 정지용의 울분은 때로 자학으로 이어진다. (「チャップリンのまね」 등).

· 정지용의 소외감. 그 속에서 그가 바랬던 것은 산문 「日本の蒲団は重い」에 나와 있듯 「朝鮮의 꽃을 피우는 것」이었다. 『京都詩人』에 참가하지 않았던 점, 『近代風景』, 그리고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와 계속 거리를 두려 했던 그 이면에는 언제나 「조선」이라는 자의식이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参考文献

金학東 (1987) 『鄭芝溶研究』, 민음사.

鴻農映二 (1988) 「정지용과 일본시단-일본에서 발굴한 시와 수필」 『현대문학』 9 월호. 현대문학사.

김학동編 (1988 : 2版) 『鄭芝溶全集 1』 『鄭芝溶全集 2』, 민음사.

熊木勉 (1992) 「정지용과 근대풍경」 『승실어문』 9, 승실어문연구회.

호테이 토시히로(1996) 「정지용과 동인지『街』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児玉実用著作集刊行会編 (1997A) 『角笛』, 京都修学社.

児玉実用著作集刊行会編 (1997B) 『ユリカモメ』, 京都修学社.

斉藤真理子 (2000) 「わかりさうなすがたのひと-鄭芝溶のこと」 『言語文化』 17, 明治学院大学言語文化研究所

熊木勉 (2001) 「정지용의 일어서」 『정지용의 문학세계연구』 (김신정 엮음), 깊은샘.

사나다 히로코 (2002) 『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 역락.

박경수 (2000) [李修京訳 : 2005] 「鄭芝溶 の 日本語詩研究」 『山口県立大学国際文化学部紀要』 11, 山口県立大学.

佐々木靖章 (2005) 「『自由詩人』『京都詩人』目次と解題」 『文献探索 2005』, 文献探索研究

¹⁷ 金학東 (1987 : 120頁)

会.

吉川風 (2007) 『朝鮮最初のモダニスト鄭芝溶』, 土曜美術社出版販売.

天野隆一 (1976[外村彰編: 2013 再録]) 「青樹創刊の頃」『京都のモダニズム (コレクション・都市モダニズム詩誌 24)』, ゆまに書房.

外村彰 (2013) 「一九二〇年代の京都のモダニズム—『青樹』とその周囲」『京都のモダニズム (コレクション・都市モダニズム詩誌 24)』, ゆまに書房.

日本の蒲團は重い

似合はぬ+モノを身につけ 下手な日本語をしやべる自分が たえきれなく淋しい。自分ながら盛つく位の 激するこつばたまが飛び散り 鋭くあらつぽい金鳳蝶の へんな發音が出てくる。獨特な不作法や 雑作的な字をぶらやら 顔肉の筋が激しく伸縮されるなきのくせが出る時に しんせつな互選の隠意の笑ひが 感されたやうな氣頓が何はれて体の相が ばらばらに割れてしまひさうな淋しさで 下宿へ歸つてくる。この ほろ足たいな感激性のために きれはさ いやな目に逢ふのだらう。寢床に入つて歩いて 見る。今日は一日中曇つた日だ。

朝鮮の釜は何時も ほがらがで笑しい。朝鮮の子のこゝろも ほがらがで笑しくある筈だ。

やゝもすれば曇りがちな このこゝろが暖はしい。道敷民の情であるこそ 雑沓のやうな根強きを持たねばならない。同處へ植えついでも 爽しい朝鮮風の花を咲かねばならない。

自分の心には恐らく いろいろの心が いつしよになつてゐるだらう。そう云ふこゝろが誰にも知られるものでない。肝心な マトババまでが知つてくれないから いやになる。鶏のこゝろ。兎のこゝろ。男のこゝろ。女のこゝろ。赤煉瓦 陶器のこゝろ。醜態のこゝろ。藪のこゝろ——その中藪のこゝろが 何もなく設計に部分を点めて居るやうな氣がしてならない。獨乙あたりの森の傳説に出てくるやうな 氣の毒に慣れた淋しい聲——それが自分である。幸福ささびの驚愕——ま白い敷布の上に四つ足を生にしてねころんでゐる痕 しかもこれが 凶邪を引き ものを語り 辯をする畜生になつたら さんなこゝろになるだらう。藪の頬も赤くなる

破れた障子の紙が 針のやう冷い風に ビュルルル—夜中の小唄をうたひ出す。蒲團の奥までもぐりこんで 寝る。……日本の蒲團は重い。